



영상매체에 담긴 불교

“인류의 눈과 마음을 잡아라”

■ 게임

컴퓨터나 비디오 뿐 아니라 차세대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에서도 각광받는 게임분야. 불교와는 거리가 있을 법한 이 분야에도 불교 소재는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 싸움’이 아닌 상생적인 관계형성을 가르쳐주는 게임’이라는 목표를 내건 불교게임 ‘탄

노피(세이생명과학시스템, 시나리오 적성 스님)’는 현재 후반작업 중에 있고,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 애니메이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오래 전부터 불교적

불교 소재 인기몰이 세계적 추세
웃음, 즐거움+부처님 가르침 심어줘
잔잔하지만 강력한 포교효과 발휘

인 색채를 띤 작품들이 다수 존재했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

아있는 ‘은하철도 999’의 철이와 ‘아름’은 모두 선재동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이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 데즈카 오사무의 ‘메트로폴리스’는 로봇 티마의 자

아 찾기 만행이 즐거이인 작품이다. 또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그의 작품들을 통해 환경보호, 생명존중, 남녀평등 등 자신의 불교적 철학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 영화

영상매체 중 가장 사랑받는 영화에서도 불교는 단골 소재다. 이전에 불교관련 영화들은 대부분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당바라’, ‘쿤둔’, ‘리틀 붓다’ 등과 같이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성 짙은 영화였다. 반면 오늘날에는 ‘매트릭스’나 ‘달마야 놀자’처럼 액션이나 코미디의 형식을 빌려 관객의 가슴속에 웃음과 즐거움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두로 심어준다.

이밖에도 점차 늘어가는 불교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발맞춰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IBFF,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로

스앤젤레스 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매트릭스’, ‘리틀 붓다’, ‘걸음마다 평화’, ‘쿤둔’ 등 10여 개국에서 출품된 30여 편의 불교 관련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영상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강력한 포교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관람한 한 네티즌은 “눈물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오세암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난 길손이처럼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상매체는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비주얼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불경을 손에 쥐어주며 포교하는 것보다, 매체에 담긴 영상미학과 스토리를 통한 잔잔한 감동으로 그들을 자연스럽게 불교와 동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비주얼 시대의 영상포교에 대한 중단차원의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왼쪽부터 베르톨루치·스콜세지·와그너·장자크 아노. 감독이래는 워쇼스키 형제.

워쇼스키 형제, 마틴 스콜세지, 장자크 아노 감독... 불교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기 전, 혹은 만드는 동안 그들은 불교를 어떤 의미로 여기고 있었을까? 세계 유명 감독들이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던 불교관을 정리해 보았다.

1. 워쇼스키 형제 (Wachowski Brothers), ‘매트릭스 시리즈(The Matrix, 1999 · The Matrix: Reloaded, 2003)’

“불교는 매트릭스를 만드는 데 있어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선불교(Zen Buddhism)적인 요소가 많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불교와 양자물리학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매혹시켰다.” (1999년 11월 6일, 네티즌들과의 온라인 채팅 중에서)

2. 마틴 스콜세지 (Martin Scorsese), ‘쿤둔(Kundun, 1997)’

“나는 여전히 불교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불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항상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 전통적인 서구의 종교는 이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불교

가장 영화감독들이 말하는 불교는?

를 통해 마음의 갈등을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1월, 쿤둔 영화 작업 후 그라함 풀러(Graham Fuller)와 가진 인터뷰에서)

3.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Bernardo Bertolucci), ‘리틀 붓다(Little Buddha, 1993)’

“불교는 내게 한 영화를 끝낼 때 다 ‘어떻게 죽고’,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 ‘어떻게 다시 에 태어나는 가’에

대한 가르침을 줬다.” (1996년, 제 37회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서)

4. 장 자크 아노(Jean-Jacques Annaud), ‘티베트에서의 7년(Seven years in Tibet,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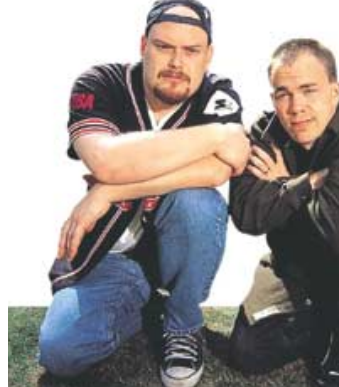
“영화를 만들기 전 나는 LA에서 텐

진 도르제(Tenzin Dorje)와 4-5개월 생활하며 불교서적을 읽고, 그와 함께 단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내 마음을 구속하던 많은 망상들을 서서히 걷어냈다. 진정한 불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길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듯하다.” (1997년 9월, <산발라선(Shambhala Sun)>과의 인터뷰에서.)

5. 폴 와그너(Paul Wagner), ‘윈드호스(Windhorse, 1998)’

“나는 영화를 통해 파괴당하고 있는 티베트의 근대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티베트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나의 정신이 풍요로워질 줄 느꼈다.” (1998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상희 기자



일본 대중문화 개방시대, 불교계 대응은?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한 장면.

9월 17일 영화와 음반, 게임분야까지 완전 개방하는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이 발표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인 일본대중문화의 수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밀듯 밀려들어오고 있는 일본문화,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문화평론가 김지용 씨는 “일본문화가 다양한 장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만 불교를 소재로 한, 혹은 불교적 가르

질 높은 상품개발, 적극적 홍보 중요

침을 담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캐릭터 등이 풍부해 엄청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재형 교수(동국대 연극영상학부)는 “영상세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질 높은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포교는 물론, 문화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명 :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기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명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기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명전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 1차 10월 13일 ~ 18일
2차 10월 27일 ~ 11월 1일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전,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혜광스님(☎ 019-588-6448)은 파동명상학회 5기생으로 난치병(암, 심장병,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신경성질환 등)을 파동명상요법으로 접근하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아래의 글들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연재형식으로 몇 주간 그 사례담을 옮겨 실습니다.

○ **올해 28세의 송기희씨(가명)는** 명문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던 중 심한 각혈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병원에서 **급성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유학을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된 투병생활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고민하다가 혜광스님을 친견할 기회가 있어 **파동명상요법**으로 급성폐결핵의 원인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 폐결핵의 병소가 밀집해 있는 그 장소에는 **IMF때 그 공원 뒷산에서 지병인 폐결핵과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한 50대 병어리 남자의 빙의령이 숨어 있었다.** 스님이 그 빙의령에게 말을 걸자, 자기는 이 여자와 아무 관계가 없고 다만 이 여자 몸 속에 있으면 이 집안에서 좋은 스님을 찾아 자신을 잘 치료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그 빙의령은 생전에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며 지금의 병의 상태가 그 빙의령과 연결되어져 있었다. 스님이 그 **빙의령의 어리석음을 티일러 천도**하니 그 이후 그녀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아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한다.